

#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순희, 김윤정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 Influence of the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for Old Age on Their Satisfaction of Life

Sun-Hee Lee, Yun-Jeong Kim  
Dept.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차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장애인 3,396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 첫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둘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장애인, 경제적 노후준비, 노후준비방법, 노후준비 충분성, 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state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for their old age, and the influence factors on their quality of life. To this aim, the 4th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were used to examine 3,396 subjects of 40 years or older. First, regarding the difference betwee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disabled were preparing for their old age, the preparing people had higher satisfaction in daily life. Second, the most popular way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old age proved the state-run public pension, and the disabled were cognitive that their preparations were not enough. Lastly, th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in daily life who were financial preparing for the old age proved higher depending on the higher sufficiency of their preparation.

**Key Words** : the Disabled, Financial Preparation for Old Age, Method of the Preparation, and Sufficiency of the Preparation, Satisfaction of Life,

### 1. 서론

등록 장애인 수는 1차 장애범주 확대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1], 장애인구 중 40세 이상 중·고령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4.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40세 이상 인

Received 1 April 2014, Revised 15 May 2014  
Accepted 20 June 2014  
Corresponding Author: Yun-Jeong Kim(Hanseo University)  
Email: twoyun21@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구 중에서도 중·고령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5%에서 40세 이상 인구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절대적·상대적 수가 많다고 볼 수 있다[1]. 따라서 2016년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인 우리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노년기의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그 중요성을 달리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 경제적인 상태는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써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비의 원천이 된다. 즉 노인에게 경제적 능력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심리적 안정감, 여가생활 등의 생활 전반에 관련이 있어 노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인이다[2][3].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미비로 사적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 노후준비가 불가능하다[4]. 노후의 어려움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는 가운데, 노후의 생활비 마련을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 할 때[5], 건강상의 문제로 노후까지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노후의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 노후준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족부양역의 변화는 노년기의 경제적 독립의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6][7][8]. 따라서 노인이 되기 전에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면 생활수준이 크게 하락하게 되고 일부는 공적 부조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부담이 심화될 것이다[4].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9]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은 30~40대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30대 이상 국민 중 40.6%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의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은 13.8%로[1],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노후준비수준은 상당히 낮아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노인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나 학계는 장애인의 노후준비나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관심은 부족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와 삶의 질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단지, 오혜경과 정덕진[10]의 주관적 소득 계층이 상층 일수록,

ADL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복지 서비스 경험이 있을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사회환경 및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안기선[11]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몇 편의 선행연구 <12><13><14>에서 노후준비(경제적 노후준비가 아닌 보다 일반적인 노후준비)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삶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에 기반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과 노후준비 충분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 2.1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데이터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차 자료를 이용하였다[15].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로서, 표본 5,092명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소득, 소비, 삶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2008년 1차 조사가 이루어져 2012년 현재까지 5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본 논문이 진행되는 2013년도에 개방되고 있는 데이터는 2011년도 수집된 4차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4차 자료를 이용하였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의 자료수집방법은 컴퓨터를 활용한 대인면접방법인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15].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개 유형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등록장애인의

로, 4차년도에는 86.4%의 표본 유지율을 보였다. 따라서 4차년도 응답자는 4,397명이고 이중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상 중·고령장애인 3,396명을 본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2.2 측정도구

### 2.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에서 만족하는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사귀는 친구들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십니까?,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하십니까?, 한 달 수입(또는 용돈)에 만족하십니까?, 여가활동에 만족하십니까?, 현재의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등의 7개의 문항, 5점 Likert형 척도로 신뢰도 Cronbach's alpha값은 .825이다.

### 2.2.2 노후준비도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준비 여부,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 충분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장애인의 노후준비 여부는 '귀하는 60세 이후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측정되었다.

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은 '60세 이후의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저축·적금,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민간금융 개인연금(주택연금 등) 가입 및 수령, 퇴직연금·퇴직보험 가입 및 수령, 주식·펀드·채권 등 운용, 부동산(월세 또는 전세금) 이용, 저축성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및 수령, 기타'의 8개의 항목에 대해 '예/아니오'로 측정되었다. 분석에서는 저축, 적금, 주식, 펀드, 채권은 하나로 묶었고, 기타는 제외하고 6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

장애인의 노후준비 충분성은 '지금 하고 계신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라는 질문에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형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충분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 2.3 중·고령 장애인의 인구학적, 경제적, 장애 특성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은 남성장애인이 62.6%로 여

성장애인보다 많았고, 평균연령은 56.17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상인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이 64.8%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가구원 수는 2명이하인 경우가 52.9%로 절반 정도였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57.4%로 이 또한 절반수준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67.5%가 좋지 않은 편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이 69.5%였으며, 56.8%가 미취업상태였고,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도 단순 노무종사자가 31.0%로 가장 많았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28.1%밖에 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은 년 평균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6.7%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집 소유형태는 자가 아닌 장애인이 많았으며, 59.5%의 장애인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장애 특성은 지체장애인이 60.4%로 가장 많았고, 경증인 경우가 64.8%였으며, 장애등급은 6급이 20.3%로 가장 많았다. 현재 장애상태는 호전 또는 고착 중인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66.0%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가 60.4%,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는 69.7%였다.

## 2.4 자료분석

중·고령장애인의 인구학적, 경제적, 장애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고령장애인의 노후준비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노후준비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 및 노후준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노후준비 방법 및 노후준비 충분성)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장애인의 노후준비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평균 3.355점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장애인 평균 2.94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disabled were preparing for their old age

(n=3,396)			
preparing for their old age	N	M(SD)	t값
Yes	505	3.355(.478)	16.841***
NO	2,891	2.941(.514)	

\*\*\* p<.001

### 3.2 노후준비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장애인의 노후준비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 따라 본 절에서는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 505명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3.2.1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 및 노후준비 충분성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 충분성을 빈도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Table 2).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은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이 61.0%인 3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적금·주식·펀드 등이 20.4%인 103명, 저축성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및 수령이 6.3%인 32명, 퇴직연금·퇴직보험 가입 및 수령 4.5%인 23명,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및 수령이 4.2%인 21명, 부동산 이용이 3.6%인 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 충분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06점으로 중앙값인 2.5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항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63.2%인 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분하다가 19.4%인 98명,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16.2%인 82명, 매우 충분하다 1.2%인 6명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들은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Method and sufficiency of the preparation (n=505)

구분		N	%	M (SD)
Method	saving · saving account · fund	103	20.4	-
	state-run public pension	308	61.0	
	private pension	21	4.2	
	retirement pension	23	4.5	
	real	18	3.6	
	insurance	32	6.3	
Sufficiency	entirely not enough	82	16.2	2.06 (.634)
	not enough	319	63.2	
	enough	98	19.4	
	very enough	6	1.2	

#### 3.2.2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구학적, 경제적, 장애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에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된 특성변수(표고는 제시하지 않음)를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Table 4). 즉, 인구학적 특성변인은 학력, 혼인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하였고, 경제적 특성 변인으로는 취업 여부, 주거 형태, 집 소유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투입하였다. 장애 특성 변인으로 장애 정도, 장애 등급, 현재 장애상태, 타인의 도움필요 여부, 도움제공자 유무를 투입하였고, 노후준비 변인은 노후준비 방법과 노후준비 충분성을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1.591로 서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고 회귀모델은 모두 유의하였다.

1단계에서 인구학적 특성은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31.6%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포함된 경제적 특성은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7.0% 증가시켰다. 3단계에서 포함된 장애특성 변인은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0.3% 증가시켰다. 4단계에서 노후준비 변인은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4.7%를 증가시켰다. 전체 15개의 변수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43.6% 설명하였는데, 그 중에서 1, 2, 3단계의 통제 변인을 제외하고 설명하면, 노후준비 충분성의 영향력이 가

<Table 4> Influence of financial preparation of the disabled who were financial preparing for old age on their life satisfaction (n=505)

변인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β	t	β	t	β	t	β	t	
(Constant)		25.818***		23.667***		19.740***		14.667***	
Demographic	Education a	.094	2.418*	.092	2.430*	.094	2.474*	.089	2.450*
	Marital status a	.158	4.198***	.090	2.404*	.079	2.134*	.083	2.322*
	Subjective health status	.503	13.017***	.497	12.826***	.452	11.109***	.436	11.130***
Cont Economic variable	Employment status a			-.038	-101	-.064	-1.683	-.034	-.914
	Housing type a			.016	430	.019	.509	.020	.565
	Ownership of house a			.111	2.822**	.096	2.428*	.089	2.331*
	Whether national independence a			-.055	-1.478	-.052	-1.401	-.029	-.816
	Subjective social status a			.206	5.620***	.201	5.525***	.112	2.970**
disabled	Disability degree a					-.028	-.499	-.010	-.185
	Disability category					.103	1.784	.094	1.684
	Disability status a					.077	2.045*	.70	1.935
	Whether help of others a					-.035	-.631	-.020	-.371
Preparation	With or without helper a					-.022	-.406	-.025	-.497
	Method of preparation a							.010	.297
	Sufficiency of preparation							.245	6.570***
F		77.125***		39.003***		25.661***		27.010***	
R <sup>2</sup>		.316		.386		.389		.436	
R <sup>2</sup> Variation		-		.070		.003		.047	

\*p<.05, \*\*p<.01, \*\*\*p<.001

a Dummy variables : Education(1=over high school), Marital status(1=yes), Employment status(1=working), Housing type(1=detached house), Ownership of house(1=yes), Whether national independence(1=yes), Subjective social status(1=upper middle class), Disability degree(1=minor), Disability statu(1=improvement or fixing), Whether help of other(1=yes), With or without help(1=with), Method of preparation(1=state-run public pension)

장 높아서 노후준비에 대한 충분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4.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차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인 3,396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이처럼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삶의 만족감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즉, 경제적 노후생활계획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11], 노인이 되기 이전의 노후준비활동을 하면 할수록 성공적 노화를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생활만족도를

통해서도 노년기 성공적 노화수준을 높일 수 있다[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13], 이승신[14]의 연구에서도 국민건강보험 가입/등재 여부, 공적연금 가입 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다.

둘째,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국가운영의 공적연금으로 하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후준비를 통해서 충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제언을 마지막에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후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이나 경제적인 특성이 삶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장애특성(장애정도, 장애등급 등)보다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후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준비변수 중에서 노후준비 충분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노후준비 방법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노후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하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후준비의 충분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결론을 내려 보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장애수당, 사적연금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함을 제안한다. 현재 장애인의 노후준비가 주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이 36.8%이고, 이 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27만 4천원으로 이는 장애인이 노년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부족하다[16]. 즉, 장애인 가구가 한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월 평균 액수가 154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년기 연금 수령액 27만 4천원은 장애인이 노년기를 살아가는데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따라서 노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확대시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연금이 2010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가구의 빈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 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부가급여가 6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불과한데 이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16만 7백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히 부가급여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연금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경증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를 좀 더 확대 시켜서 전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노후의 삶을 위해 보다 확고한 공적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의 액수를 비장애노인에 비해서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거나,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에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처럼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50% 정도를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의 사회적 안정감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넷째, 장애인과 후원자간의 연계를 통해 재정적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시설장애인의 경우 후원자와 연계를 통해서, 장애수당을 저축하는 경우 같은 액수의 금액을 후원받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실시되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전체 시설로 확장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연계, 지역후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보다 충분하게 하고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삶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사적 금융기관이 장애인의 후원기관이 되어, 장애인에게 이율을 좀 더 높여주는 방안도 장애인의 재정적 안정을 돕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한 방안을 강화 및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만 20~64세 장애인의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실업율은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수의 3%, 민간기업은 2%,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액의 5%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관평가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시킬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즉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은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장애인이 취업이 어려울 경우 그 가족원을 고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isabled statistic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Development. 2012.
- [2] S. S. Kim, W. A. Park, A study on the economical retire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its related factors, Vol.3, No.2, pp.45-57, and consumer research, 1992.nt Center, 2012.
- [3] E. S. Shin, (A) Study on unmarried women's understanding on and provision for their old age : Focusing on female Seoulite high attainments, Master's Thesis -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02.
- [4] C. J. Park,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0, No.3, pp.275-297, 2008.
- [5] S. M. Yun, C. G. Sohn, H. J. Yang, H. C. Lee, E. J. Kim, M. S. Choi, G. C. Yu, H. Y. Shin, H. N. Bang, Y. H. Lee,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pension for building a multi-layered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olicy report, 2012.
- [6] Y. J. Kang, A Study on Korean Adults ' Planning for Old Age: Targeting the married men and women of 30's, 40's and 50'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16, No.4, pp.159-174, 2005.
- [7] J. H. Lee,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Financial &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20, No.2, pp.275-289, 2009.
- [8] H. R. Choi, Influence of the middle aged adults' life style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n the preparation on life in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Doctoral Thesis -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1.
- [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 2011 investigation of citizen's awareness on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
- [10] H. K. Oh, D. J. Jung, A Study of Determinant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Pers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14, No.3, pp.151-173, 2010.
- [11] G. S. An, A Study on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from the life plan for their elderly life of the middle-elderly aged employees - focused on the 4th and 11th year data in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Hanseo University, 2011.
- [12] D. B. Kim, K. H. Jeong, E. J.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Previous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Life of Elderly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8, pp.325-352, 2012.
- [13] H. S. Ahn, H. M. Kim, J. K. Anh, Y. H. Kim,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Vol.13, No.3, pp.137-155, 2009.
- [14] S. S. Lee,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iddle-Old age Koreans According to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s, A study on the consumer culture, Vol.15, No.4, pp.43-61, 2012.
- [15] S. J. Yang, J. C. Choi, J. J. Ryu, H. J. Kim, The

4th Disabled Employment Panel Survey(2011),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Development Center, 2011.

- [1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tatus of retirement preparation by the people of  
baby boomers era and the direction of support  
system for the retirement design, Vol.98, 2011.

**이 순 희(Lee, Sun Hee)**



- 2009년 2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석사)
- 2014년 2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박사)
- 2001년 1월 ~ 현재 : 충남 정심원 사무국장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장애인노인

· E-Mail : 62041sh@hanmail.net

**김 윤 정(Kim, Yun Jeong)**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부양가치관, 자살
- E-Mail : twoyun21@hanmail.net